

반도체 대형株 수급 온도차… 개인 ‘삼성’·외국인 ‘SK’ 집중

코스피 강세장 속 투자 패턴 엇갈려
반도체 전망 긍정적… 상승여력 유효
업계 “미중갈등 등 변동성 주의해야”

8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0.03% 상승한 4552.37에 마감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행보는 엇갈렸다. 외국인들은 약 1000억원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한 반면, 개인들은 1조2500억원 순매했다.

최근 ‘불장(강세장)’ 속에서 이처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새해들어 4300을 돌파하고 4600까지 오르는 거래일(2~8일)간 코스피 상승을 이끈 두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엇갈린 투심을 보였다.

◆ 외국인 개인 엇갈린 반도체주 투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2조33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2~5위(종목 기준)인 삼성에프스홀딩스, HL만도, 삼양식품, 고려아연 등



코스피가 전 거래일(4551.06)보다 1.31포인트(0.03%) 오른 4552.37에 거래를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의 순매수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위는 SK하이닉스로, 순매수 규모는 9216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동일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기도 하다. 개인들은 이 기간 SK하이닉스를 6173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1조1277억원)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대

거 매도한 건 오랜 기간 물려 있다가 가격 부담이 커져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오모(28)씨는 “최근 하이닉스가 80만에 다다르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며 “몇 년 전 삼성전자가 9만원 중반대를 ‘터치’한 후 5만~6만원까지 쭉 빠져서 오래 기다린 악몽이 있는데, 하이닉스도 그럴까 봐 걱정됐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로 ‘갈

아타기’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출범 이후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은 144%, 하이닉스는 264%로, 약 두 배 차이 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실적 전망 대폭 상향

반도체 업황은 장밋빛이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제품 단가가 높은 HBM 공급이 늘어나고 범용 D램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 분석이다.

UBS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이 올해 4230억달러(약 625조원)에서 2026년 5710억달러(약 84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가 속기 수요가 늘면서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자체 개발 이수도 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가 대표적이다. 오픈AI는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트레이니엄3’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AI 칩 ‘마

이아200’을 출시한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8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맥쿼리는 두 회사를 모두 핵심 추천 리스트인 Marquee Buy List(최선호 투자 종목군)에 포함하며 대표 투자 종목으로 제시했다.

맥쿼리는 단기간 내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2026~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추정치보다 약 50%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눈높이를 대폭 높이며, 순이익이 2025년 45조 원에서 2026년 101조 원, 2027년에는 1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반도체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 시장주변을 맴도는 악재들이 많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지스운용 “AI가 투자판도 바꿀 것… ‘크로스에셋’ 본격화”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발표
‘하이브리드 캐피탈 앤 에셋’ 전략 제시

올해 부동산 투자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변화가 자산 가치의 판도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과 인프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크로스에셋’(Cross-Asset)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투자 방식이 시장 선점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략리서치실은 보고서에서 2025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국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화, 운영 효율화, 디지털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AI를 중심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으로 인프라와 기술이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연결되면서, 섹터와 자산 간 질적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난 한 해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핵심 투자 전략으로는 ‘하이브리드 캐피탈 앤 에셋’(Hybrid Capital & Asset)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과 인프라 간 경계가 무너지는 섹터 융합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연한 자본 구조와 다양한

자산군 연계 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고용 지표 둔화, AI 버블론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 꼽혔다. 국내는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이원화’ 현상이 뚜렷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은 호조세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과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 주도의 정상화·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사모대출(Private Debt) 시장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은행권의 대

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자금 공백 속에서, 사모대출이 프로젝트를 완결시키는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약 1.8조 달러에 달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시장은 자산 가치 기준이 바뀌는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분야다. AI 워크로드 증가에 따라 기존 서버 임대 중심의 중소형 시설에서 ‘하이퍼스케일 AI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으며, 서울 내 부지 희소성과 전력 확보 이슈로 인해 경기 외곽 및 비수도권으로 공급이 분산되는 추세다.

전략리서치실은 2026년 상반기 투자 방향으로 ▲디지털 인프라 중심 자산 재정의 및 크로스에셋 투자 확대 ▲대출시장 유동성 공백 활용 및 유연한 자본 구조 구축 ▲부동산-인프라 연계 플랫폼 투자 및 장기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투자증권 ‘AI혁신산업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는 글로벌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을 선별해 집중 투자한다. 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금융, 컨슈머플랫폼, 바이오테크, AI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7개 하위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한국투자신탁 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 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각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회사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하위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률 10%까지는 고객과 회사가 수익을 85:15 비율로, 수익률 10% 초과 이익부터는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허정윤 기자

예탁결제원 ‘K-Camp’, 6년간 1200억대 투자 유치

6년간 308개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료
“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어갈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비수도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Camp’가 6년간 누적 1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내며 지역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Camp는 2019년 말 출범 이후 2025년까지 약 6년간 총 308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수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813명, 누적 투자유치 1189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K-Camp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창업 인프라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하지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K-Camp를 운영해왔다.

누적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권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다. 해당 지

역은 총 71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수료해 448억7000만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하며 전체 투자유치 규모의 약 38%를 차지했다. 신규 고용도 211명으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했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기반 스타트업과 기술집약 산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라지역은 56개 수료기업을 통해 192억6000만원의 투자유치와 16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대구·경북은 51개 기업이 참여해 167억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9

개 기업이 수료해 144억원의 투자유치와 126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후발 지역인 강원과 제주도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강원은 37개 기업이 참여해 54억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제주는 34개 기업이 수료해 183억2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K-Camp는 매년 일관된 성과를 내며 비수도권 특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기업이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금 ETF 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RX 금현물 ETF’의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종가 기준 ‘TIGER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은 1조 607억원을 달성했다. 금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로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순자산이 확대됐다.

해당 ETF는 지난해 개인 누적 순매수 5378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상장한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